

【 2 】 회암사 약사 삼존도 제자리 찾기 건의문 채택의 건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8. 8. 5

발 의 자 : 박재일 의원 외 6인

□ 주 문

지난 1997년부터 회암사지에 대한 발굴조사를 시작하여 현재 출토된 유물을 전시하고 소장할 전시관을 건립 중에 있으며 회암사 약사 삼존도가 원래의 자리인 회암사로 돌아와 출토된 유물과 함께 회암사지 전시관에 전시될수 있도록 19만 양주시민들을 대표하여 강력히 건의함

□ 건의내용

1. 회암사 약사 삼존도는 1565년 문정왕후가 아들 명종의 쾌유와 세자 탄생을 빌기 위해 제작한 불화로서 국립중앙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음
2. 회암사는 송유역불의 정책이 시행되던 조선시에도 태종 이성계, 문정황후 등 왕실의 보호와 국가적 차원의 후원을 받았던 조선최대 규모의 황실사찰임
3. 회암사는 문정왕후 사후 유생들의 방화에 의해 문화재도 함께 소실되었음
4. 회암사 약사삼존도는 왕실에서 행해진 불교 숭배 상황을 알수있는 사료적 가치있는 큰 문화재임
5. 1997년 회암사지에 대한 발굴조사를 시작하여 유물전시관을 건립중에 있음
6. 회암사 약사삼존도가 원래의 자리인 회암사로 돌아와 회암사지에서 출토된 유물과 함께 전시관에 전시될수 있도록 19만 양주시민을 대표하여 건의함

붙 임 : 회암사 약사 삼존도 제자리 찾기 건의문 채택의 건